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연 옥

2015년 8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 연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4개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8일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강선희(2002)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총45문항, 5점 Likert)를, 강유리(2006)의 취업스트레스 척도(총22문항, 5점 Likert)를, 그리고 진로미결정 측정은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척도(총22문항, 5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진로미결정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 18.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취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에서는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 소심/자신감부족이 진로미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는 성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독립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불안정과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가운데 학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가 대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용어: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진로미결정	6
2. 내현적 자기애	13
3. 취업스트레스	20
4.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26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연구도구	29
3. 연구절차	31
4. 자료처리 및 분석	32
IV. 연구결과 및 해석	33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2.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33
3.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진로미결정의 차이	35
4.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38
V. 논의 및 결론	42

참고문헌	47
Abstract	56
부록목차	58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표 III-2. 진로미결정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III-3.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0
표 III-4.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1
표 IV-1. 성별 및 학년별 응답자 분포	33
표 IV-2.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	34
표 IV-3.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	34
표 IV-4.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평균	35
표 IV-5.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 평균의 변량분석	36
표 IV-6.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평균	37
표 IV-7.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 평균의 변량분석	37
표 IV-8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	39
표 IV-9.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39
표 IV-10.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	40
표 IV-11.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40

그림 목차

그림 IV-1.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	36
그림 IV-2.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취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따라 학과와 전공, 그리고 학교를 결정해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었으며 학생 자신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다양하게 가져보지 못한 이유도 한 몫을 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직업(42.1%)과 공부(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4세의 경우 2002년에는 직업 때문에 고민한 비중이 8.6%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38.5%로, 2014년에는 42.1%로 증가 하였다. 대학이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학생과 부모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결정은 고민 될 수밖에 없다.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미래 불확실성과 사회 환경 및 성격특성의 문제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불안으로 휴학을 하거나 회피, 보류, 지연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2009. 3. 9.)에 의하면 대학생의 재학기간은 남학생인 경우 7년, 여학생은 4년 7개월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난으로 인한 진로의 미결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진로미결정이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한가?’ 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서 출발되었다. Gordon(1995)은 진로미결정을 단순히 무능력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며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거나, 내릴 수 없거나, 또는 내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였다.

국내연구에서 김봉환(1997)은 진로를 결정했다 하는 것은 현재 상태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과 졸업 후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단계로의 진로 의사결정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였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인에는 성별, 학업성적, 학년, 계열, 사회계층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변인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 Daniels와 Buck(1984)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허자영(1996)은 진로미결정의 학년 간 차이를 입증하였다. 특히 정애경(2008)은 진로미결정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관련 논문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가져 보지 못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본 연구자는 실질적으로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 대학생으로, 남녀의 재학기간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진로미결정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격문제 및 사회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었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목표불안정, 인정욕구, 과민함, 우유부단함 등의 하위요인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Bluestein(1987)은 진로문제는 부적응적 성격패턴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Kjos(1995)는 성격 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함, 의존성, 지연행동, 자기 패배적 행동, 완벽성, 대인관계상의 어려움, 불안, 과민함, 극도의 조심, 양가감정 등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애의 유형인 내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과의 관련 변인임을 알 수 있다.

Freud(1953)는 내현적 자기애란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하고 거대자기를 마음속으로 억압하는 유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가 개발(김은석, 2006) 되면서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선행연구는 사회불안(김나예, 2012), 완벽주의(박동숙, 2004), 공격성(최두환, 2013), 대인관계(주지영, 2012), 적응(한상은, 2012), 인터넷 과다사용(임지영, 2012) 등이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김은석, 2006), 학교생활적응(이춘희, 2007), 불안(하정희외, 2009), 역기능적 진로사고(김기명, 양민아, 2010), 부모화 및 과보호경험(조이정, 2015)과 같은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겸손이 사회적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주제를 선정하였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더불어 진로미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취업스트레스이다. 황성원(1998)은 취업스트레스란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와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라고 했다. 또한 정의석과 노안영(2001)은 취업스트레스와 관계 연구에서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 최초의 취업 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취업스트레스라고 정의 내렸다.

김미경(2008)은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은 과도한 취업경쟁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에 따른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고 하였다. 디지털 타임즈(2014. 7. 27)에서는 남녀 대학생과 직장인 662명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정도와 해소법'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진로 및 취업고민'이 8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취업스트레스의 선행연구에서 김영미(1990)의 연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진로문제, 학사문제, 군대문제 등으로 인한 휴학과 복학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반면에 김혜정(2004), 박선희와 박현주(2009), 신현균과 장재운(2003)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냈다. 여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졸업 후 바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강부명(2003), 박성환(2006), 정선영(2002) 등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연구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이론에 의한 진로미결정은 개인의 진로에서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즉,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의 시기에 우유부단함과 같은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가 제공 되더라도 진로결정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진로미결정에 관련된 변인 중에서 내현적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는 대

학생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담고 있다.

현대사회는 PR(홍보)시대이다. 내현적 자기애를 성격장애로 보는 관점은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내현적 자기애를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특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 및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가.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이란(career indecision)이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뿐 아니라 특성적으로 진로결정에 대해 우유부단함을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유지선,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얻게 되는 직업을 뜻하며 진로미결정은 앞으로 추구할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란 거대자기를 안으로 억압하는 유형으로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해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소심한 경향이 있다. 타인의 비판에 쉽게 수치심과 굴욕을 느끼고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을 사용하였다.

다.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졸업 예정자이거나 최근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미결정중인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을 동반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 상태, 신체적, 심리적 평형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유리(2006)가 연구한 가족환경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및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진로미결정

가. 진로

진로란 한 개인이 생애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 진로는 개인이 가졌던 직업으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태도, 동기,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로계획, 직업탐색, 일의 세계에 대한 태도와 지식, 직업에 대한 만족도, 승진, 직무에 대한 동기, 직업변경 등이 모두 진로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Tolbert(1974)은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라고 했다. 이재창(1992)은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선택한 진로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 발휘의 기회, 주거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김계현(1995)은 일반적으로 진로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직업(occupation, vocation)이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을 의미하는데, 진로는 이런 유·보수 직업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일, 자원봉사, 복지사업, 가사일, 정치운동 등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진로는 직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진로란 개인의 일생에서 하는 일의 총체이다. 개인의 생애직업발달과 그 과정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과거에는 한 직업을 평생 동안 고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진로를 직업과 동의어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직업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기능도 많

이 변화되어 진로와 직업의 구별이 필요해졌다(김충기, 1998). 진로는 심리적인 개념에 가까운데 이는 진로와 관련된 인지 또는 행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요소가 개인적인 욕구, 포부, 동기 등이 포함된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때, 자신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한다. 이러한 양상은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심리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하나의 진로유형을 추구하게 된다. 진로유형을 검토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그 진로 유형이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욕구와 포부, 충족, 재능과 잠재력의 실현 등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어떻게 촉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연하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자신의 흥미, 적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진로미결정의 개념

진로미결정은 진로의사결정이론으로부터 등장한 개념으로 진로미결정의 이론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making)과 관련된 기제를 설명하는 진로의사결정이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Harren, 1979)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이론은 개인의 진로에서 다양한 선택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한다.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고향자(1993)는 개인이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지닌 개인을 도와주기 위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Ginzberg와 그의 동료들(1951)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한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 초기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Super(1957)는 직업 선택에 대한 발달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일생을 통해 필요한 진로발달의 개념으로 진로 결정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진로미결정은 진로 의사결정수준이론에서 진로결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한가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되었다(Wanberg와 Muchinsky, 1992).

Crites(1981)는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진로미결정이라고 정의 내렸고, Slaney(1988)는 진로결정과정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용 되어온 구성개념을 진로미결정이라 하였다. 진로미결정은 심리적 관점에서 우유부단함과 같은 성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개인 내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는 직업을 결정하는 발달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이론적 접근이 진로미결정의 단일한 측면에만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진로미결정의 개념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이우성, 2012). 이처럼,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분야는 오랫동안 진로발달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Lucas, 1993), 이러한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로미결정의 정의와 특성에는 아직 많은 혼란이 남아 있어서(Saunders, 2000)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진로미결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진로미결정을 결정과 대비되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주목받았던 Parsons(1967)이 내담자를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눈 것이 대표적이다. 이 관점에서는 진로결정집단과 미결정 집단의 학문적, 성격적 그리고 전기적 차이를 알아내고자 하였고 결론은 미결정집단의 특성이 미성취, 미성숙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미성숙 집단의 원인을 밝혀 이를 치료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후 진로미결정자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즉 발달 단계 상의 미결정자(undecided)와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 즉 만성적 미결정자(indecisive)로 구분되었다(Vondra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그러나 진로결정자, 미결정자와 같은 이분법적인 분류로는 진로상담을 필요로 하는 잠정적인 내담자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진로상담의 장면에서 홍나영(2010)은 진로미결정자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 변화과정은 진로미결정을 결정과 연속된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1970년대 중반에 이

르러 많은 연구자들이 진로미결정을 이분법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한계를 인정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포기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진로결정이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변경 가능하므로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미결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진로미결정 및 결정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Holland(1973)의 “The Vocational Decision-Making Difficulties Scale”와 Opipow(1976)의 “Career Decision Scale”가 개발되었다. 한편, Savickas(1995)는 진로결정의 연속선상에서 내담자들의 상태를 예측하는 척도를 고안하여 상담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결정의 과정을 대중화시키는 데에 공헌했다. Holland, Gottfredson과 Nafziger(1973)는 진로미결정자들이 진로선택을 미루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측정하는 진로결정곤란 척도를 개발하였고, 진로결정의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미결정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진로미결정이 하나의 집단이 아닌 서로 다른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진로미결정을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서로 다른 표현양상과 원인들을 지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로 보았다. 최근의 진로미결정 연구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질적인 진로미결정의 하위 유형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탁진국과 이기학(2001)은 직업결정척도를 개발 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측정하고 있으며 하위 요인은 자기이해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외적장애의 다섯 종류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정보부족’은 어떤 직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모르거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며, ‘자기명확성 부족’은 어떤 직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모르거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내용에 관한 것이다. ‘우유부단’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인해 직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의미하며, ‘필요성인식 부족’은 현 시점에서 직업선택이나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외적장애’는 자신이 바라는 직업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나 주변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학벌이나 연령 등의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또는 전직 시 학벌과 연령을 많이 고려하

는 국내의 취업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미결정을 정리하자면, 진로는 단순한 정보제공과 발달상의 경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개인이 여러 가지 경험과 상황들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을 현재 상태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과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다.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이상과 목표 간의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인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런 적응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자질과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과 사회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게 된다.

Erikson(1963)에 의하면 대학생은 성인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전생애로 볼 때 매우 불안정한 시기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로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Super(1972)는 직업발달이론에서 발달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진로발달 과업을 잘 완수해야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한 직업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Crites(1981)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그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의 구성요소 보다는 정보의 부족, 진로 결정에 대한 학습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요소 부족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족 요소의 보충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Salomone(1982)은 진로미결정이란 25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젊은 개인들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영향에 직면해서 진로미결정이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직업의 세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결정의 과정을 연기시키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반면 진로에 대해서 결단성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상태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해 진로선택을 연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대신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Walsh(1987)에 따르면 진로결정은 개인의 발달 과정 중 하나이고 개인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회학습 이론가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유전적 재능과 자질, 환경조건과 다른 사건들, 학습경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진로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이론화하였다.

장선영(1997)은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 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결정을 의미한다면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환경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진로를 아직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표은경(2009)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 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며, 대학생의 시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과업뿐 아니라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서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건강, 대인관계기술 등을 뽑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은 개인에게 있어 성인기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발달과제로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직업선택은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미결정자가 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 수동성, 복종성,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자기비판, 정체감의 혼란(Holland & Holland,1977),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등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진로문제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대학생의 진로문제는 발달단계상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대한 이해와 진로탐색의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진로미결정의 선행연구

Gordon(1981)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흥미, 가치, 능력, 욕구, 자아 개념, 성숙도, 동기, 에너지수준, 대학수준, 의존성, 불안, 사회경제적 수준,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 성별, 사회적 도덕적 태도, 부모들의 수입, 일의 경험, 부모의 교육 수준, 생애목표/포부, 대학성적, 성취검사 점수, 회피행동, 직업정보결여, 의사결정 기술/패턴/유형 등이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변인들은 사회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인에는 성별, 학업성적, 학년, 사회계층 등이 대표적이다.

Daniels와 Buck(1984)은 학년에 따라 진로미결정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진로에 대한 확신점수는 대학교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1학년이 가장 낮았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수준에서 학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진로결정 수준에 발달적 특징이 있음을 나타낸다. 최영미(1998)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학년의 진로결정수준이 2, 3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었다. 그밖에도 Neice와 Bradley(1979), Osipow, Camey와 Barak(1976)의 연구에서는 성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전공계열별 차이를 살펴본 허자영(1996)은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이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며,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의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긴 했지만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경(2008)은 전공계열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는 불안,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에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격 특성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 내현적 자기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 구조의 통합 정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다를 수는 있으나 누구라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김은석(2006)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현적 자기에가 심리적 특성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주목받고 있으며 후속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진로미결정은 내담자의 총체적인 성격적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로미결정과 내현적 자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2. 내현적 자기에

가. 자기에의 개념

Havelock Ellis는 자기에란 한 남성의 자기성애(auto-eroticism) 사례를 나르시스 이야기에 빗대어 묘사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후 Nacke가 사람이 환경에 대해 보이는 반응 스타일을 기술하면서 나르시스적(narcissis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권석만, 2000).

Freud(1953)는 자기에란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 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에 성향은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속성이지만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에가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면 병리적인 자기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신생아는 자신의 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전폭적인 애정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유아기적 또는 일차적 자기에(infantile or primary narcissism)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자신과 외부세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부모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를 대상애(object-love)라고 한다.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애정을 교환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이차적 자기에(secondary narcissism)라고 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애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가치감을 느끼는 상호적인 성숙한 형태의 자기에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유아기적 자기에에 고착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병적인 자기에라고 주장한다.

이후 자기에에 관한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킨 학자는 Kernberg와 Kohut이다. 이들에 의해 자기에에 관한 정신분석적 논의가 정점에 이르게 된다. Kernberg(1975)는 자기에란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애정을 받지 못한 아동에게서 발달 한다고 하였

다. 냉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양육자와 함께 생활한 아동은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강화 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분노를 투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며, 만성적으로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또한 만성적인 강한 시기심과 함께 때로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동성애 혹은 성도착의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Kohut((1977)은 자기에가 정상적인 인간 발달의 한 측면이라 생각했다. 유아는 부모의 반응을 거울삼아 행동하고 부모를 완벽한 존재라고 인식하는데 이 과정이 거울반응과 이상화이다. 유아는 이상화된 존재인 부모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부모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므로 자동적으로 자신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유아기적 자기에는 아동이 점차 성장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자기상과 타인상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자기에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기적 자기에가 지속되고 방어적이고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치감 조절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자기대상(self-object)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는 자기에적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늘 갈망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는 자기에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박세란 외, 2005). 특히 Kohut은 자기에적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지각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인 한계를 무시하면서 복수 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는데 이러한 비합리성은 자기에적인 사람들이 추리나 사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정도임을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한수정, 1999; 박세란 외, 2005).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에서는 자기에적 성격장애를 정의함에 있어서 Kernberg(1975)가 기술한 특성에 따라 공격적이고 외현적이고 외향화된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에 기재된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특징은 지나친 자기사랑과 자기중심성, 웅대성과 자기 중요성을 과시하며 무한한 능력, 권력, 재력,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을 지닌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과 존경에 대한 욕구를 자주 표현하며, 공공연하게 특권의식을 내세우고 타인을 착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권석만(2000)에 의하면 자기에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기사랑과 자기도취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장애라고 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착취적이거나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어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성격을 말하며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는 이론이다.

자기애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그 중 하나는 정신분석적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DSM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 준거를 기반으로 한 성격 심리학적 연구들이다(한수정, 1999). 성격장애의 진단은 1980년부터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III; DSM-III)에서부터 성격장애 진단 범주에 포함된 이후 DSM-IV(1994)에 이르기까지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현상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자기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정신분석 이론이 사고, 감정, 행동, 대인관계 양상 등 자기애적 현상에 대한 심리적·행동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과 기제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을 병리적인 성격장애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정상과 비정상의 연속선상에 위치하여 정상인에게도 그 성향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Raskin(1980), Raskin과 Hall(1981), Emmons(1984)도 병리적인 자기애는 자기애적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는 이런 행동이 성격특질로서의 자기애를 반영하는 것이라 가정하 바 있다.

이처럼 자기애란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애의 장점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 본다.

나.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

자기애는 성격장애의 현상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는 거대자기를 안으로 억압하는 유형으로,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하다. 특히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

축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소심한 경향이 있다. 타인의 비판에 쉽게 수치심과 굴욕을 느끼고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권석만(2000)은 내현적 자기애의 이러한 특성은 결국 자신은 상처 받아서도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밋보여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타난다. 자신이 무엇인가 못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기애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에 초점을 맞춰 다루지고 있으며 외현적과 내현적의 차이는 자기애가 드러나는 개인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유형은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외현적 자기애가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여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다.

Akhtar와 Thomson(1982)는 Kohut(1977)가 제시한 이론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내현적 자기애는 지나친 과민성, 열등감, 무가치감, 취약함, 권력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특징짓는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가 강한 시기에 칭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만성적으로 지루해하고 불확실해 하며 직업적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자존감을 지키려 하고 이기적이면서도 내면에 감추어져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또 그렇기에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럴 위험에 처하거나 처할 상황을 억지로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민병배와 유성진(2008)은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고 위축되어 있으며 불안정한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핵심 믿음은 열등함과 무가치함으로, 임상장면에서도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열등감을 탐색하는 데에는 저항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장애에 대한 진로결정을 회피 하고 지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많은 임상가들은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에 제시된 자기애

와 표면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유사한 역동과 정서·인지적 특성을 지닌 자기애적 병리가 존재 한다는 것에 주목해 왔으며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애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박세란 외(2005)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일부 경험적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이 구분에 의하면 자기애는 웅대하며 취약한 자기개념을 공통 핵심 특성으로 하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먼저 외현적 자기애는 거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가 두드러지고, 자신의 웅대성을 밖으로 전시하고 겉에서 보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DSM-IV에서 기술된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여러 특징들은 대체로 외현적 자기애의 특징을 포함한다(박세란 외, 2005; 김기명, 2010). 이에 반해 내현적 자기애는 거대자기를 안으로 억압하는 유형으로 오만해 보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달리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하고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쓰며 위축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소심한 경향이 있다. Akhtar와 Thomson(1982)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임상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자기개념에 있어서 외현적 자기애는 과장된 자기존중과 거만한 웅대성, 부, 권력, 아름다움, 지적능력에 대한 환상, 특권 의식, 스스로가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을 지닌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지나친 과민성, 열등감, 무가치감, 취약함, 권력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외현적 자기애는 깊이가 결여되어 있고 타인을 경멸 혹은 평가절하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칭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셋째,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외현적 자기애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거짓승화(pseudo sublimation)와 함께 강한 야심을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만성적인 지루함과 불확실성, 직업적·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유형의 자기애가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적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Cooper(2000)는 두 유형의 자기애가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경탄을 요구하고 웅대성을 전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역동을 나타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다(박세란 외, 2005). 병리의 정도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는 달리 내현적 자기애는 안녕감 및 개인적 적응에서의 결손과 관련이 되고, 우울 및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세란 외(2005)에서도 증명되었다. Wink(1991)는 6개 자기애 척도를 요인 분석한 연구에서 서로 직교하는 2개의 요인을 얻었다. 웅대성-과시성(Grandeur & Exhibitionism) 요인과 취약성-민감성(Vulnerability & Sensitivity)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다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Kernberg(1975), Kohut(1977), Akhtar와 Thomson(1982)이 이론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외현적 자기애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자기애적인 속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며,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성격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권석만, 2000). 또한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의 성취나 재능, 업적 등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회피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점은 '자기애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은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고 본다. 즉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존재로서 상대를 대하고, 내현적 자기애는 나를 받아들여 주고 좋아해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가 자신을 추켜세우기 위해 오만하고 공격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탓에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다.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와 달리 자존감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거나 위협적인 상황은 회피하며 타인의 눈치를 많이 살핀다. 이는 적극적인 외현적 자기애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기애의 두 유형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데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유형이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물체는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

앞에서 살펴본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고 본다면 출발점이며 시작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한다면 성장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하며 쉽게 상처받는 등 부적응적인 특징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애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NPI(Raskin & Hall, 1979, 1981)를 주로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큰 사람들은 그 자체의 과민성으로 인해 소심함과 취약함, 불안, 직업적·사회적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한수정, 1999 Akhtar & Thomson, 1982).

선행연구에서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2005)은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타인의 평가에 과민해지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어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홍석(2007)은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과 소심의 성향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춘희(2007)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상미와 이숙(2009)은 우울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다는 보고를, 홍정연(2009)은 대인관계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은석(2006)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밝히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이후, 내현적 자기애를 다루는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김기명(2010)은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이 높은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김은석, 2006 홍나영, 2010 김기명, 2010 오혜숙, 2013 양민아, 2013 최정문, 2013 유나영, 2014)는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등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내적으로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자기를 이상화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 특성은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내담자의 의사결정력을 저해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졸업 후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사회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확인받기 위해 직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취업스트레스

가.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외적 또는 내적 요구가 개인의 적응자원을 능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환경적 자극 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정서체계, 행동체계, 생리체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늘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스트레스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nger'로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으로 유래되었으며 그 후 string, strest, straise 로 불리다 14세기에 이르러 stress로 되었다.(윤종희·정원주, 1997). 이러한 스트레스라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는데, 17세기에 있어서는 어려움, 고난, 역경 또는 고생을 의미했으나, 18세기와 19세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힘, 압력 또는 긴장을 의미하는 물리학과 공학의 용어로 쓰였고, 19세기 및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스트레스의 개념에 의학적 의미를 첨부시키게 되었다. 즉, 좋지 않은 건강상태나 정신질환의 의미가 내포되기 시작하였다(최혜림, 1986; 김홍류, 1989). 또한 스트레스란 한 사람이 만족스러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생리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두려움과 같은 육체적, 화학적 또는 정서적 요인 또는 유기체의 항상성을 파괴시키는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유해한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자극들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유승흠, 2008).

스트레스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구분하고 있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based model of stress)는 객관적인 물리적 위협이나 심리적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조건으로 정의하려는 입장이며 개인에게 심리적인 갈등이나 긴장을 주는 환경내의 자극특징을 스트레스로 본다. 스트레스를 외적요인이나 외적인 힘으로 기술하면서 압력과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을 긴장(strain)이라 한다. 사람들이 외적 압력에 견뎌내는 저항 수준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수준이 최적의 조건을 벗어날 때 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Holroyd와 Lazarus(1982)는 실패 또는 실패의 위협, 환경에서 오는 불유쾌한 대

상들, 고립감, 죽음의 경험, 사회 변화 등을 스트레스 자극으로 보았다. 그들은 개인의 적응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요하는 생활사건(schedule of recent experience) 43개를 모아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 하였으나 생활사건에 따라 스트레스의 강도가 틀리므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사회 재적응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를 개발하여 각 생활사건에 따라 비중점수를 할당하여 생활변화 점수의 총합이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based model of stress)는 초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로 사용되었으며, 환경적 요구 및 내적 요구에 개인이나 사회, 조직체계의 적응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의미한다. 긴장이 지속되거나 강도가 심해지면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태, 즉 긴장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의 결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 모두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Selye(1982)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가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일반 순응 증후군’이라 하였으며 동물을 비롯한 사람도 이와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자극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정의는 무엇이 스트레스 이고 아닌지를 구분하는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transactional-based model of stress)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과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 및 개인의 인지적 현상과 정신적 심리과정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여 개인의 지각, 인지, 생리적 특징도 환경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고 또한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이다(이미경, 2004).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환경적 조건에 의해 자신의 요구와 동기가 위협 당하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상호작용 모델은 개인의 인지의 과정과 대처방식을 중요시 한다. 주어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는 이러한 관점의 중심이 된다. 이 개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과정이나 대처 방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지현상학적모형 또는 대처모형이라고도 불린다. 대처능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 장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반적인 대처행동까지도 포함한다.

나.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란 대학졸업 예정자이거나 최근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미결정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을 동반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취업에 관련된 문제로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황성원(1998)은 취업스트레스를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정의석, 노안영(2001)은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 최초의 취업 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본다. 김혜정(2004)은 취업스트레스를 취업 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강유리(2006)는 진로성숙도와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이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 준비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배주은, 이현림, 2008; 황성원, 1998)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강경훈, 2010)를 말한다. 여기서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나 불안, 두려움, 걱정과 같은 심리내적인 요인은 취업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정서적, 신체적 반응의 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킨다. 이훈구, 김인경 및 박윤창(2000)의 연구에서는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들이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그리고 불안 경향성 모두에서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으며, 취업 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개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외부적 요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압박감, 좌절감, 갈등 및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각종 외부환경(제석봉, 2006), 즉 물리적, 사회적 환경 및 환경의 변화 요인을 말하며, 내부적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개인 내부의 동기나 인지, 행동, 성격, 신체적인 요인을 말한다(김정호, 김선주, 2007). 취업스트레스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안, 두려움, 걱정 등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내부적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적인 요인을 외적 자극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너무나 다양해 모두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강경훈, 2010). 취업 스트레스는 그 정도가 적응적이지 못할 때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안이나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기실현을 위하여 취업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적응적일 때 취업을 위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취업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및 그에 따른 적응정도 차이에 의해 개인이 보이는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반응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란 취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능력을 능가하는 내·외적 요구에 대한 개인의 인지 및 그에 따른 적응정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반응을 말한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에 필요한 요인임을 인지하고 자기탐색과 경험을 통해 사회 환경과 조화롭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청년기의 마감은 ‘실제적인 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기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활양식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청년기에 속한 대학생은 만족스런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미결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성영모(2007)는 청년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며,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서,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역할 경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청년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황성원(1998)에 의하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

어진다. 첫째, 학업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중 특히 학업문제와 관련된 취업스트레스를 말한다. 둘째, 성격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중 특히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와 관련된 취업스트레스를 말한다. 셋째,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중 특히 학교환경으로부터 받는 취업스트레스를 말한다. 넷째, 가족환경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중 특히 가족환경으로부터 받는 취업스트레스를 말한다. 다섯째, 취업불안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생활 중에 심리적·신체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로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선택 하거나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을 선택 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대한 이해와 탐색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취업스트레스의 하인요인들은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성격, 환경, 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라.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 및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정의석과 노안영, 2001).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로는 학업,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건강, 대인관계 기술 등이 있으며(이은희, 2004),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성경, 2003; 김영상, 2003; 박윤희, 2008; 박혜정, 2002).

김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나타냈다. 또한 신현균, 장재윤(2003), 박선희, 박현주(2009)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하지만 김영미(1990)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진로문제, 학사문제, 군대문제 등으로 인한 휴학과 복학의 변화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 졌다. 한편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2002), 강부명(2003), 박성환(2006)등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의한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신권섭, 2001).

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연구를 보면, 황성원(199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전체 및 하위요인별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학년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또한 높아졌으며, 김혜정(2004), 강부명(2003)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공계열과 관련해서 취업스트레스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황성원(1998)의 연구에서는 인문계열이 이공계열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은(2000)의 연구에서도 공학계열보다 인문계열이 취업스트레스를 더 높게 받았다. 한편 김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공대, 사범대보다 인문대, 경상대, 자연대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박선희, 박현주(2009)의 연구에서도 공학, 사범계열에 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계열에서 유의하게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보였다. 전공계열에 따라 비교적 인문계열이 이공계열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우울관련 (이지혜, 2013), 진로성숙도, 취업불안(조민제, 2010), 자아분화(강경훈, 2009), 부모관련(홍나영, 2011), 진로장벽(김성재, 2013), 진로결정(박선희, 2009), 진로결정수준(김성희, 2010)등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논문에서 알 수 있듯,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환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단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선 개인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4. 내현적 자기에,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및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논문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은석, 2006 홍나영, 2010 김기명, 2010 오혜숙, 2013 양민아, 2013 최정문, 2013 유나영, 2014)가 보도 되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은석(2006)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밝히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내현적 자기에(김은석, 2006 양민아, 2013 오혜숙, 2012 이춘희, 2007 하정희 외, 2009)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은 그 자체의 과민성으로 인해 소심함과 취약함, 불안, 직업적·사회적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한수정, 1999 Akhtar & Thomson, 1982)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등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2005)은 내현적 자기에가 높아질수록 타인의 평가에 과민해지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어 우울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홍석(2007)은 내현적 자기에의 과민과 소심의 성향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춘희(2007)는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상미와 이숙(2009)은 우울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다는 보고를 홍정연(2009)은 대인관계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오혜숙(2013)은 내현적 자기에 전체와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이 진로미결정 전체와 각 하위요인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여러 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은석, 2006 오혜숙, 2013 유나영, 2014). 이에 최정문(2013)은 목표불안정 요인을 통제된 뒤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과민/취약성과 소심/자신감 부족이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중에서는 우유부단이 내현적 자기에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진로미결정의 필요성 인식부족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만심과 특권의식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대한 필요성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진로와 취업스트레스간 연구는 진로결정(박선희, 2009), 진로결정수준(김성희, 2010), 진로장벽(김성재, 2013)등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지선(2012)의 연구결과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성별에 대한 차이 연구를 보면, 김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나타냈다. 또한 박선희, 박현주(2009), 신현균, 장재운(200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학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연구는 강부명(2003), 김혜정(2004), 황성원(1998)등이 있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에게서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윤향중(2005)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문제행동을 예언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으며, 김하경(2008)의 내현적 자기애와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개개인은 스트레스 정도를 다르게 인지한다. 신현균(2003)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성격특성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신경증과 부정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내현적 자기애의 심리성격적 특성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한 취업스트레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건강하게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 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해 진다. 취업스트레스 역시 진로미결정과 관련성이 많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 내적 심리인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절차, 자료처리 및 분석 등으로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하는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11,363명(통계청 자료 2014년 기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450명이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된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4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72명(42.8%), 여학생이 230명(57.2%)으로 여학생이 58명(4.4%)이 많은 비율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6명(28.9%), 2학년 164명(40.8%), 3학년 87명(21.6%), 4학년 35명(8.7%) 이었다. 대학생의 학년별 비율은 2학년 164명(40.8%), 1학년이 116명(28.9%), 3학년 87명(21.6%), 4학년 35명(8.7%)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성별	남자	54	56	51	11	172 (42.8%)
	여자	62	108	36	24	230 (57.2%)
계	116 (28.9%)	164 (40.8%)	87 (21.6%)	35 (8.7%)	402 (100.0%)	

2. 연구도구

가. 직업미결정 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국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국내문화에 적합하게 개발한 직업미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4문항), 우유부단(4문항), 필요성 인식부족(4문항), 외적장애(4문항)의 5개요인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총 22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며,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직업정보부족 .83, 자기명확성부족 .88, 우유부단 .72, 필요성 인식부족 .62, 외적장애 .6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으로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86, .77, .79, .85, .8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별 문항구성은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진로미결정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직업정보 부족	1, 2, 3, 4, 5, 6	6	.86
자기명확성 부족	7, 8, 9, 10	4	.77
우유부단	11, 12, 13, 14	4	.79
필요성 인식부족	15, 16, 17, 18	4	.85
외적 장애	19, 20, 21, 22	4	.80
전 체		22	.89

나.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2002)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목표설정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만족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9문항),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자신을 불행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며 평가에 예민하고 취약한 과민/취약성(10문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20, 34, 37, 43번 문항은 역채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전체신뢰도를 .90으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목표불안정 .8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80, 과민/취약성 .80, 소심/자신감부족 .77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8, .75, .79, .82, .76로 나타났고 각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의 III-3과 같다.

표 III-3. 내현적 자기에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목표 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	.88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	.75
착취/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	.79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	.82
소심/자신감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	.76
전체		45	.92

*는 역채점 문항임

다. 취업스트레스 척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deical Index: CMI) (Shepherdetal, 1966)을 토대로 개발된 황성원(1998)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강유리(2006)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지의 하위요인은 성격스트레스 요인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요인 5문항, 학업스트레스 요인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요인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요인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형태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본다. 강유리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성격스트레스 .84, 가족환경스트레스 .87, 학업스트레스 .79, 학교환경스트레스 .78, 취업불안스트레스 .78이었다. 본 연구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6, .88, .85, .83, .84로 나타났고 각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취업스트레스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성격 스트레스	1, 2, 3, 4, 7, 8	6	.86
가족환경 스트레스	10, 11, 12, 13, 14	5	.88
학업 스트레스	19, 20, 21, 22	4	.85
학교환경 스트레스	15, 16, 17, 18	4	.83
취업불안 스트레스	5, 6, 9	3	.84
전체		22	.94

3. 연구절차

본 연구 진행절차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50명을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8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검사도구의 성격을 충분히 설

명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15분이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4개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처리 하였으며 본 연구 자료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 취업스트레스 척도, 그리고 진로미결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점수 범위는 1~5점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의 하인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학년을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1. 성별 및 학년별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성별	남자	54	56	51	11	172 (42.8%)
	여자	62	108	36	24	230 (57.2%)
계	116 (28.9%)	164 (40.8%)	87 (21.6%)	35 (8.7%)	402 (100.0%)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172명(42.8%), 여학생이 230명(57.2%)으로 여학생이 58명(4.4%)이 많은 비율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6명(28.9%), 2학년 164명(40.8%), 3학년 87명(21.6%), 4학년 35명(8.7%)이었다.

대학생의 학년별 비율은 2학년 164명(40.8%), 1학년이 116명(28.9%), 3학년 87명(21.6%), 4학년 35명(8.7%)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4개 대학중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이 있어서 4학년의 학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및 취업스트레스와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2 와 같다.

표 IV-2.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r)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내현적 자기애	-		
취업스트레스	.44***	-	
진로미결정	.68***	.52***	-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은 .68($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 역시 .52($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은 .44($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IV-3은 성별에 따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IV-3.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r)

구분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남자	.51*	-
	여자	.37*	-
진로미결정	남자	.68*	.58*
	여자	.68*	.46*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 성별을 나누어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녀 성별과는 무관하게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정적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의 정적상관 역시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아질

수록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 수준도 함께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에, 취업스트레스, 진로미결정의 차이

가. 성별과 내현적 자기에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성별과 내현적 자기에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에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을 보면 내현적 자기에 수준의 중간 값은 3점(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을 기준으로 수준이 ‘낮은 집단’ 과 ‘높은 집단’으로 보았다. 진로미결정의 평균을 보면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성별과 내현적 자기에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평균(표준편차)

		내현적 자기에		
		下 집단 (n=194)	上 집단 (n=205)	평균
성별	남자 (n=170)	2.38 (.52)	3.09 (.53)	2.75 (.63)
	여자 (n=230)	2.34 (.50)	3.06 (.47)	2.70 (.60)
	평균	2.35 (.50)	3.08 (.52)	

표 IV-4를 살펴보면 남자의 전체 평균은 중간 값보다 낮은 2.75이고 여자의 전체 평균은 중간 값보다 낮은 2.70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내현적 자기에를 보통보다 낮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가 낮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은 2.35이고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은 3.0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성별과 내현적 자기에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 평균의 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A)	.16	1	.16	.64
내현적 자기에 (B)	49.96	1	49.96	198.46***
A × B	.00	1	.00	.01
오차	99.69	396	.25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의 결과를 보면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64$, $n.s.$). 이것은 남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2.75$)과 여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2.70$)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주효과는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98.46$, $p < .001$). 이는 내현적 자기에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 평균에도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3.08$)이 내현적 자기에가 낮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2.3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내현적 자기에가 상호작용을 주었을 경우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p < 0.05$). 즉,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내현적 자기에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1$, $n.s.$).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IV-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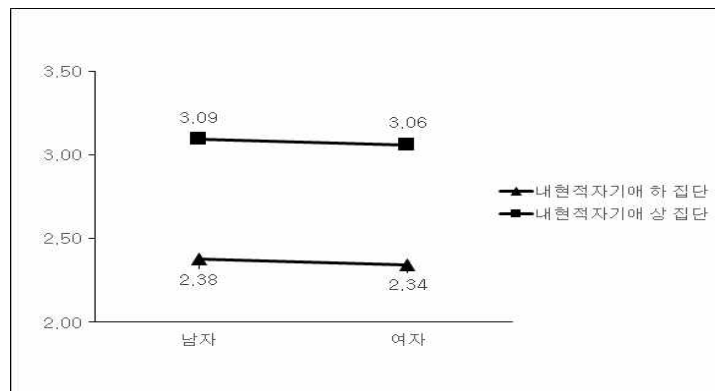


그림 IV-1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내현적 자기에의 상호작용 효과

나.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차이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집단별 진로미결정의 평균을 보면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평균(표준편차)

		취업스트레스		
		下 집단 (n=215)	上 집단 (n=186)	평균
성별	남자 (n=172)	2.40 (.57)	3.05 (.51)	2.76 (.63)
	여자 (n=229)	2.54 (.60)	2.95 (.53)	2.70 (.60)
	평균	2.49 (.59)	3.00 (.52)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을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은 2.49로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의 평균 3.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7과 같다.

표 IV-7.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 평균의 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A)	.03	1	.03	.09
취업스트레스 (B)	26.76	1	26.76	85.68***
A × B	1.47	1	1.47	4.71**
오차	123.98	397	.3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진로미결정 수준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09$, $n.s.$). 이것은 남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 = 2.76$)과 여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 = 2.70$)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85.68$, $p < .001$). 이는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 평균에도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3.00)이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2.4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취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71, p<.001$). 남자인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미결정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에도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미결정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의 높고 낮은 집단 간의 차이에 따라 진로미결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진로미결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자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진로미결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별과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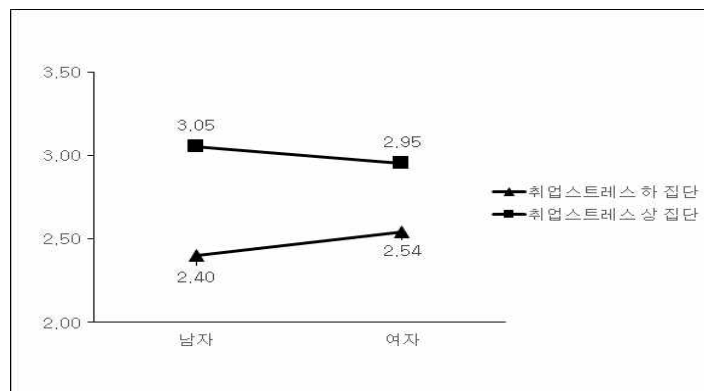


그림 IV-2.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취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4.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효과

진로미결정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들과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표 IV-8.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r)

	목표불안정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착취/ 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 자신감 부족
진로미결정	.68***	.32***	.43***	.57***	.52***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목표불안정.68, 과민/취약성.57, 소심/자신감부족.52, 착취/자기중심성.43,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진로미결정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9.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표준오차	β	t
내현적 자기애 전체	.88	.05	.68	18.44***
	$R = .68$	$R^2 = .46$	$F_{(1, 398)} = 339.86^{***}$	
목표불안정	.41	.04	.49	11.41***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07	.05	-.07	-1.59
착취/자기중심성	.18	.04	.17	4.21***
과민/취약성	.10	.06	.11	1.77
소심/자신감 부족	.17	.05	.17	3.52***
	$R = .74$	$R^2 = .54$	$F_{(5, 394)} = 91.81^{***}$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중다회귀계수는 $R = .68$ 로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 전체 변량의 약 46%($R^2 = .46$)가 내현적 자기애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들의 중다회귀계수는 $R = .74$ 로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 전체 변량의 약 54%($R^2 = .54$)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F_{(5, 394)} = 91.81, p < .001$)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내현적 자

기애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불안정’과 ‘착취/자기중심성’ 그리고 ‘소심/자신감 부족’이 진로미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효과

진로미결정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들과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 상관계수(r)

	성격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 스트레스
진로미결정	.85***	.40***	.46***	.45***	.4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0을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성격 스트레스 .85, 가족환경 스트레스 .40, 학업 스트레스 .46, 학교환경 스트레스 .45, 취업불안 스트레스 .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진로미결정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1.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표준오차	β	t
취업스트레스 전체	.44	.04	.52	12.07***
$R = .52$ $R^2 = .27$ $F_{(1, 399)} = 145.57^{***}$				
성격 스트레스	.14	.05	.19	2.91***
가족환경 스트레스	.01	.05	.02	.29
학업 스트레스	.14	.04	.20	3.11***
학교환경 스트레스	.12	.05	.17	2.65***
취업불안 스트레스	.04	.05	.06	.86
$R = .53$ $R^2 = .28$ $F_{(5, 395)} = 30.70^{***}$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중다회귀계수는 $R = .52$ 로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 전체 변량의 약 27%($R^2 = .27$)가 취업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의 중다회귀계수는 $R = .53$ 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 전체 변량의 약 28%($R^2 = .28$)가 취업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F_{(5, 395)} = 30.70, p < .001$)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가운데 ‘성격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문제는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라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먼저, 가설 1-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에서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64, n.s.$). 이것은 남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2.75$)과 여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2.70$)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98.46, p<.001$). 이는 내현적 자기애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 평균에도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3.08$)이 내현적 자기애가 낮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2.3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1, n.s.$).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거보다 여자의 교육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고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반영과 외동이의 성별 차이를 두지 않는 부모의 교육환경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가설 1-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성별과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진로미결정에서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9$, *n.s.*). 이것은 남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2.76$)과 여자의 진로미결정 평균($M=2.70$)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5.68$, $p<.001$). 이는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진로미결정 평균에도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3.00$)이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진로미결정 평균($M=2.4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취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71$, $p<.001$).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된 강부명(2003), 박성환(2006), 정선영(2002) 등의 취업스트레스의 연구결과와 일치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성별에는 차이가 없었다.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취업스트레스는 남녀 모두 받고 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낮은 집단 간의 차이에 따라 진로미결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진로미결정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도 진로미결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의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목표불안정 .68, 안정욕구/거대자기환상 .32, 착취/자기중심성 .43, 과민/취약성 .57, 소심/자심감부족 .52으로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관계는 .6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중다회귀계수는 $R = .74$ 로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 전체 변량의 약 54%($R^2 = .54$)가 내현적 자기애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F_{(5, 394)} = 91.81, p < .001$)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불안정과 착취/자기중심성, 그리고 소심/자신감부족이 진로미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혜숙(2013)의 내현적 자기애 전체와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 요인이 진로미결정 전체와 각 하위요인에 정적상관을 입증한 점과 일치한다. 특히, 여러 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은석, 2006 오혜숙, 2013 유나영, 2014).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확실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격스트레스.85, 가족환경스트레스.40, 학업스트레스.46, 학교환경스트레스.45, 취업불안스트레스.4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 역시 $.5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미결정에 대한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의 중다회귀계수는 $R = .53$ 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 전체 변량의 약 28%($R^2 = .28$)가 취업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F_{(5, 395)} = 30.70, p < .001$)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가운데 성격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김성희, 2010 김성재, 2013 박선희, 2009 조민제, 2010)와 일치한다. 이 역시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탐색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미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를 앞에서 검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석 및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진로미결정에 대한 성별과 취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는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에서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 소심/자신감부족이 진로미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불안정이 진로미결정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는 성격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독립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하위요인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연구가 되

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만을 연구하는 동향에서 벗어나 성별의 차이를 연구한 것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남녀 대학생들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았으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에서 목표불안정과 착취/자기중심성, 소심/자신감부족이,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성격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선정함에 있어,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로미결정이란 졸업 후 직업에 대한 진로결정과 관련됨으로 학년별 특성을 먼저 고려한 후 연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획수립하기 바란다.

둘째, 진로미결정과 관련변인 중 내현적 자기애는 한국사회의 미덕으로 생각하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풍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조사 이외에 행동관찰, 실험연구 등의 측정방법을 병행하여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에 대한 관련 변인을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 관계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용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상담현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특성을 가진 대상과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훈(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부명(2003). **대학생들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 성별, 학년별, 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선영(1997). **아이덴티티(identity)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유리(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욱(2009). **청소년의 내.외현적 자기에와 자기개념명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현경, 김종남(2014). **내현적 자기에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의 지지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기만(200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기명(2010). **자기애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따른 진로미결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예(2012).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적 평가두려움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8). **학생의 취업가능성 인지가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김빛나(2010).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 김성희(2010). **취업희망프로그램이 장기실업자의 구직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영미(1990).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상(200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석(2006).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균, 장석진(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정호, 김선주(2007).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정서경험유형**.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 16(4).
- 김진순(2008).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른 외현 및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부정정서, 자존감, 능력귀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충기(1998).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 김태석, 이기학(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 김하경(2009). **긍정 완벽주의 및 부정 완벽주의의 인지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김혜정(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2014. 7. 27일자.

민병배, 유성진(2008). **성격장애의 인지치료**. 서울:학지사.

박동숙(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희, 박현주(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1), 67-81.

박성환(2006). **특수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세란(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윤희(2008). 2008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30(1),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박혜정(2002).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순천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영모(2007). **진로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의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언희, 강연우, 허보연, 하정희(2008). **자기제시동기에 따른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19-838.

신정옥(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19(2), 109-141.

신현균, 장재운(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양민아(2012). **내현적자기애와 진로미결정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오혜숙(2013).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신념의 매개효과**.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홍석(2007).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유형.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나영(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 유지선(2005). 전문대 비서과 재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구 비서학 논총, 14(1), 193-217.
- 윤종희, 정원주(1997).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문헌고찰. 동덕대학교. 동대논의, 27(1).
- 이미경(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영(200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우성(2012). 대학생의 학습몰입,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분석: 남녀 및 학년별 차이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안창일(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은희(2011).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 및 자아정체성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지, 16(2), 401-424.
- 이인숙(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1992). 진로탐색프로그램의 활용. 대학생학 연구, 10, 19-36. 한양대학교 학교생활연구소.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6).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이지영(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서울대

- 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 이춘희(200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 미결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외(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훈구, 김인경, 박운창(2000). 경제 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2), 87-101.
- 임지영(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정서조절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광호(2013). **대학생의 교육만족도 및 취업준비에 관한 실태조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애(200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애경(2007).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의석, 노안영(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카운슬링센터**, 33, 85-101.
- 조민제(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이정(2015). **대학생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지영(2012). **초등학교 6학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과 부정적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두환(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문(2013).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검증.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종순(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향미(2006).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 및 타인 표상에 대한 연구. 서울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개발을위한탐색적연구. 디지털경영연구, 167-180. 광운대학교 디지털경영연구소.
- 통계청 (2014). 2014 사회조사. <http://kostat.go.kr/>, 2015년 2월 5일 검색.
- 표은영(2009). 여대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진로행동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경제신문(2009. 3. 9). '대학생 재학기간 평균 6년으로 늘어, 취업난 탓'
-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2009).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83-701.
- 한수정(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수현(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효정(2012).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내적통제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특성불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나영(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정연(2009).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의 접근-회피 동기와 대인관계양식.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성원(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15-237, 2003.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luestein, D. L. (1987). Intergrating caree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omprehensive treatment strategy. *Psychotherapy*, 24, 794-799.
- Bluestein, D. L.(1989).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 students. *Journa l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11-117.
- Cooper, A. M.(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cGraw-Hill
- Daniels, M. H., & Buck, J. N.(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nual*. Los Angelese: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eud.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 Germeijs, V., De Boeck, P.(2003). Career Indecision: Three factors from Decision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1-25.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od, S., & Herma, J.L.(1951). *Occupational Guidance Quarterly*, 20(3), 169-175.
- Gordon, V. N.(1981).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e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Gordon, V. N. (1995).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 Illinois: Tomas Books
- Harren, V. A. (1979).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kem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 Kho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jous, D. (1995). Linking career counseling to personal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592-597.
- Lent, R. W., Brwon, S. D.,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40-448.
- Neice, D. E., Bradley, R. W. (1979). Relationship of age, sex, and educational groups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3), 271-278.
- Osipow, S. H., Carney, C.,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Parsons (1967).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Savickas, M. (1991). The meaning of work and love: Career issues and interventi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315-324.
- Savickas, M. L. (1995). Constructivist counseling for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4), pp.363-373.
-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G., & Rear 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67-72.
- Selye, H. (1982). The stress Concept: Past, Present and future, In stress

Research, John Wiley & sons. Ltd.

- Stead, G. B., Watson, M. B.(1993). How similar are the factor structures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cision Profile, and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 Row
- Tinsley, H. E. A., Bowman, S., York, D. C.(1989). Career decision scale, My vocational situation, Vocational rating scale, and Decisional rating scale: Do they measure the same constru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15-120.
- Tolbert, N. E. (1974). In: Algal physiology and biochemistry. Stewart, W. D. P. (ed.), pp. 474 - 504. Oxford, Englan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 Ltd.
- Vondrace, F. W., Hostetler, M., Shulenberg, J. E., & Shimizu, K.(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Wink, P. (1991). Tow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York: Jason Aron Selye, H.(1985).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nat & Lazarus, R.S.(Eds), *Stress and coping: Ananthology. 2nd*, New York. son.

<Abstract>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and Job-seeking Stress on the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Lee, Yeon Ok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how covert narcissism and job-seeking stress affect the career indecision targeting college students and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for this purpose.

Research issue 1. According to gender is th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vert narcissism,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issue 2. Do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and job-seeking stres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indecision?

To verify above research issues, a survey for students of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conducted for a period of 38 days from 24 November 2014 until 31 December 2014.

The measuring tools of the study were Covert Narcissism Scale (total of 45 questions, 5 points Likert) of Kang SunHee(2002), Job-seeking Stress Scale

(total of 22 questions, 5 points Likert) of Kang YuRi(2006), and Career Indecision Scale(a total of 22 questions, 5 points Likert) of Tak JinGuk and Lee GiHak(2001). The questionnaire scores range from not at all(1 point) to very much(5 point).

Covert narcissism,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were investiga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with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wo-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PSS Statistic 18.0 was used for i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However, the main effect of the covert narcissism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indeci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covert narcissism on career indecision was not significant, and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indecision was significant.

Second,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indecision. It is found that the higher covert narcissism and job-seeking stress, the higher career indecision levels. Instability of goal,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and timidity/lack of confidence, which are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were found to have an independent effect on the career indecision. Also, personality stress, academic stress and stress from school environment which are sub-factors of job-seeking stress, were found to have an independent effect on career indecision. In particular, it showed that instability of goal among the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and academic stress among the job-seeking stress had a high correlation with career indecision.

Covert narcissism and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have at least stud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indecision.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university students to decide their career.

* Key words: covert narcissism, job-seeking stress, career indecision

부 록 목 차

<설문지 1> 진로미결정 척도	60
<설문지 2> 내현적 자기애 척도	61
<설문지 3> 취업스트레스 척도	63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진로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됩니다. 또한 설문지의 질문은 특정한 정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 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10분~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최 보 영

연구자 : 이 연 옥

연구자 연락처: yolee293@hanmail.net

* 다음은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찾아 적당한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5
2.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1	2	3	4	5
3.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5
4.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5.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다.	1	2	3	4	5
6.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7.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8.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9.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10.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11.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1	2	3	4	5
13.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1	2	3	4	5
14.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15.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1	2	3	4	5
16. 미래의 직업을 현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1	2	3	4	5
17. 현재로서는 직업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18. 내 인생에서 직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9.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0.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1	2	3	4	5
21.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1	2	3	4	5
22. 학벌이나 연령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찾아 적당한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락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한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0.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찾아 적당한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취업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1	2	3	4	5
2. 취업에 대하여 걱정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가 내려 한다.	1	2	3	4	5
3. 요즘 나는 꿈속에서도 취업걱정을 한다.	1	2	3	4	5
4. 취업에 실패하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1	2	3	4	5
5.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등의 복용이 늘었다.	1	2	3	4	5
6.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을 잃을 정도이다.	1	2	3	4	5
7. 나는 취업에 실패 한 적이 있어 또 다시 실패가 되풀이 될까봐 두렵다.	1	2	3	4	5
8.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진다.	1	2	3	4	5
9. 취직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신문과 잡지의 구직란을 본다.	1	2	3	4	5
10. 나는 대학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취업하여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11. 나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돈을 벌어야 한다.	1	2	3	4	5
12.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어 취업을 해야 할 실정이다.	1	2	3	4	5
13. 나의 경제사정으로 졸업 후 취업해야 하지만 몹시 어렵다.	1	2	3	4	5
14. 가족과의 불화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직이 너무 어려워 답답하다.	1	2	3	4	5
15. 우리 학교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1	2	3	4	5
16. 나는 실력을 가졌지만 우리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 불리할까봐 걱정이다.	1	2	3	4	5
17. 내 지도교수님은 나의 취업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아 섭섭하다.	1	2	3	4	5
18. 나는 지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조건에서 불리한 것 같다.	1	2	3	4	5
19. 나는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1	2	3	4	5
20. 나는 취업공부로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5
21. 나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5
22. 내가 장차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

